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제1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러르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던 히브리인의 시인의 노래가 기억납니다. 조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과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던 우리의 눈길이 깊어져, 조용하지만 어김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정한 이웃을 원망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무정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이제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빔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	인도자
♠ 교 독 문	37. 이사야 40장(2)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조관행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21.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다함께
성경봉독	I. 눅 19:1-10	인도자
	II. 눅 6:32-36	김중수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그 사람도 사람이다	김재흥 목사
	II. 자비로운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48. 이 세상 끝날까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넓히기 위해 애쓰십시오. 믿음으로 복돋고, 소망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해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과 돌봄과 나눔을 통해 가능한 진정한 우정의 공간을 창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8월 동교회 모임	에베소서 강해(17)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염혜영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유경순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김 극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홍기 홍순구 최숙화 이형숙 이춘희
	헌금위원	방문성 박창운 안길상 임창선 김명순 박효선

한 사람의 박수

한 신문 기자가 유명한 성악가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성악가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공연이 언제였냐고 묻자 성악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성악가가 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때 한 작은 도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지요. 딱 짜인 일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날 따라 몸과 마음이 몹시 피곤했답니다. 겨우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가다보니 손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다시 공연장으로 지친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런데 저는 손가방을 들고 나오려다 텅 빈 공연장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지요. 저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공연이 다 끝난 공연장에 혼자 앉아 있는 이유를 물었지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소녀가 대답을 하더군요. 자신은 돈이 없어 공연장에 올 수가 없었고, 꼭 듣고 싶었던 노래를 듣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텅 빈 무대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냥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소녀의 맑은 눈망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소녀가 혼자 친 박수였지만 그 박수소리는 지금까지 어느 공연장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박수소리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저처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언제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바로 그날 소녀가 제게 보내준 박수소리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셈입니다.”

오직 한 소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른 성악가의 모습이 귀하게 여겨진다. 자신의 노래를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소녀, 그러나 돈이 없어 공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소녀를 위해 노래를 불렀을 때 소녀는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바로 그 박수 소리가 오늘의 자기를 있게 했다는 고백 또한 귀하게 들린다.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를 위대한 성악가로 만든 오늘 우리 주변엔 우리의 삶을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음

을 기억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울러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치는 박수는 많은 사람이 치는 박수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힘차게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해 박수를 보내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빈다. (<<기독교사상>>, 2005년 8월호 중에서)

한 세월 흐른 후

집 옆 작은 계곡은 내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큰비 내리고 난 후 그곳에는 많은 모래와 새로운 돌들 떠 내려와 있습니다. 모난 돌들보다는 둥글둥글한 돌들이 눈에 많이 뜨이네요. 저 돌들 옛적에는 큰 바위산의 일부였겠지요. 많은 세월 눈·비·바람맞으며 떨어져 나와 닳고닳아 저리 둥글어졌습니다.

제 눈에 뜨이게 된 돌 하나의 세월 짐작해 봅니다.

예전에 풍화작용이라고 배운 기억나네요.

간혹 제 관화 보시면서 새기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이 될만한 나무로 자라는 데 삼 사십 년, 판으로 켜서 말리는 데 이삼 년, 대패질하고 사포로 문지르고 새기는 것까지 합하면……’이라는 대답에 이제는 한 세월을 더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뜨여서 내게로 온 그 物들의 세월을 말이지요.

한 세월 흐른 후/둥글둥글해졌구나
귀 부드러워지는 나이/육십이라 했던가?
그쯤 살면/큰소리 모난 소리/안 할라나

그런 세월 그냥 오겠습니까.

잘살아야지 오겠지요.

등근 돌보며 고맙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화가 류연복의 <<둥글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저를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소서

하나님,

저를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지혜 안에 가두시며

당신께로 이끄소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지 저 자신의 만족 때문이라면,

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진정 제가 고독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 길에서 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저는 무조건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

저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저는 늘 당신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때와 당신만의 방식에 맞게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토마스 머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명남 조관행 홍선희 정복순 박창운 허정운
배삼순 홍순구 안홍숙 노용래 차혜심 박경원 박재실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윤성종 김윤정 김홍기 최윤희 이정은 전영규 김경수
박찬정 이갑재 김정섭 이은자 노미향 배부례

감사헌금:

김재흥 양재성 임미심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혜숙 박창운 허정운
조항범 오현정 하재두 이은옥 이광용 표명화 염혜영 한지혜 임창선

생일감사헌금:

김경수 이성경 최인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섬	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동호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성도들간의 좋은 사귄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3. **목요성서모임** : 25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속개됩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계속합니다.
4. **체험학습** : 유치부가 다음 주일(28)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세계 곤충학습체험전에 다녀옵니다.
5. **찬양제** : 성가대가 주관하는 가족 및 속별 찬양제가 9월 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신청해주십시오.
6. **평화교육** : 감리교 평화교육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기독교 평화교육’이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감리교 본부 13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신앙실천** :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찬송가 5장 이상을 정성껏 불러보십시오.

* 식당 봉사 : 엠마오속

* 헌화 : 최윤희 집사(남편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